

여수서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남해안남중권유치위 출범

# 2022년 총회 유치 10개 시·군 힘 모은다

툰베리와 함께 꿈꾸는 푸른 하늘  
유치위, 결의문 통해 공식 제안  
균형발전·동서화합 새 전기 마련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남해안남중권유치위원회가 지난 16일 여수박람회장에서 공식 출범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이날 여수세계박람회장 컨벤션센터 엑스포 홀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권오봉 여수시장, 시민단체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COP28 유치 출범식이 열렸다.

출범식은 홍보영상 상영에 이어 COP28 공동유치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20여 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출범식에 앞서 유치위는 공동유치위원장에 허상만 순천대 웰빙 자원학부 석좌교수와 박재영 광주대 부총장, 류중구·조세운 동서창조포럼상임위원장(전남·경남)을 선출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출범식에서 “남해안·남중권 10개 시군 모두가 힘을 한데 모아 노력하면 2022년 제28차 COP를 반드시 유치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국가 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의 새 전기가 될 것”이라며 “전남도 차원에서 2022년 COP가 남해안 남중권에서 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환영사에서 “COP 유치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힘을 모아 나간다면 세계박람회의 감동을 재현하고, 남해안남중권이라는 이름으로 새 역사를 써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의 경계를 넘어 화합하고, 희망찬 미래로 함께

나아가갈 수 있도록 더 큰 노력과 열정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희상 국회의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축하 영상으로 COP28 남해안남중권유치를 기원했다.

이날 유치위는 ‘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로 푸른 하늘을 되찾자’라는 제목의 결의문도 발표했다.

유치위는 결의문을 통해 COP28은 2012 여수세계박람회 여수 선언이 살아 숨 쉬는 남해안 남중권에서 개최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또 자치분권 국가를 수립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지지하며, 이번 COP28 남해안 남중권 개최로 실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22년 대한민국남해안남중권에서 스웨덴 출신 16세 환경운동가 그레

타 툰베리와 함께 손잡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는 꿈을 향해 행동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번 출범식 행사장에는 기후 홍보관이 운영됐고 COP28 유치 기원 범국민 서명운동도 함께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여수시 관계자는 “오늘 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위원회가 희망찬 첫발을 뗐다”면서 “위원회가 초기에 정착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COP는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에서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제28차 총회는 대륙별 순회 원칙에 따라 오는 2022년 아시아·태평양권에서 열릴 예정이다.

여수시는 COP28을 오는 2022년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중심으로 남해안 남중권에 분산 개최할 방침이다.

/여수=김칭화 기자 chkim@



새로 단장한 여수중앙시장 청년 꿈뜨락몰.

## 중앙시장 청년 꿈뜨락몰 산뜻해졌네

시설 개선·운영자 교육

여수시가 여수중앙시장 청년 꿈뜨락몰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시설 개선과 운영자 교육 등을 진행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중소벤처기업부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포함 총 사업비 13억원을 확보했다.

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위·수탁 계약을 맺고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꿈뜨락몰 내에 장애인 승강기를 설치하고, 공용화장실을 확장했다. 방문객 휴게공간과 수유실을 마련하고, 냉난방설비 보강과 환기시설 개선 공사를

진행했다.

외부 조형물과 간판을 정비해 미관을 개선했고, 꿈뜨락몰 입구에 방문객 동선을 표시해 고객중심의 쇼핑환경도 조성했다.

꿈뜨락몰 활성화 사업도 알차게 추진했다.

청년몰 상품력 개선 컨설팅과 청년상인 역량강화 교육훈련을 하고, 협동조합 조직화와 비즈니스모델 개발사업도 벌였다. 꿈뜨락몰 디자인 개발사업과 고객체험 프리마켓 운영사업 등도 진행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한층 깔끔하고 편리한 시설에서 시민과 관광객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칭화 기자 chkim@

## 시민 78% “전라선 옛 철길공원 만족”

여수시민을 대상으로 전라선 옛 철길공원(사진)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78%가 “만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10일간 모바일 앱 ‘시민소통광장’에서 시민 686명을 대상으로 전라선 옛 철길공원 만족도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24%가 매우 만족, 54%가 만족을 표시했고, 보통은 20%, 불

만은 2%로 집계됐다.

불만사항으로는 벤치, 정자 등 휴식공간 부족, 정결상태 미흡, 오토바이·전동휠 무단통행, 반려동물 관리 소홀 등이 나왔다.

또 공원 이용 시민의 연령대는 50-60대, 30-40대, 10-20대, 70대 순으로 나타났다.

전라선 옛 철길 공원은 구역을 나눠 2단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단계 사업은 만흥-양지바름공원 16.1km 구간으로



지난 2019년 9월 개통됐다. 2단계 사업은 (구)덕양역-대포-(구)울촌역 5.3km 구간

이며 2023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여수=김칭화 기자 chkim@

## 여수시의회, 해상케이블카 기만행위 강력 규탄

“공익기부금 약속 지켜라” 촉구

여수시의회가 해마다 막대한 이익을 올리면서도 지역사회와 약속한 최소한의 기부금 협약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여수해상케이블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7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19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고희권의원이 케이블카 측의 공익기부 약정 이행과 시민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미납 기부금을 여수시민재육성장학회로 입금해 달라는 여수시의 요청까지 묵살하는 여수해상케이블카에 대한 기부금 납부를 강력히 촉구하라고 나선 것이다.

고 의원은 10분 발언을 통해 “케이블카 측이 2017년 1분기부터 2019년 3분기까지 19억 2400여만원의 기부금을 미납하고 있다”며 “임시사용 승인 등 혜택 덕분에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제소전 화해 판결에 반하는 공권력과 시 행정을 무시하는 행위이자 30만 여수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케이블카 측이 지난 2014년 여수시와 분기별 매출액(3%) 기부 약정을 체결하고도 자체 장학회 설립 등을 이유로 사실상 기부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고 의원은 여수시가 돌산공원과 자산공원 일부 부지를 매각해 준 것, 사업 준공을

위해 오동도 입구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도록 임대협약을 체결한 것, 준공 전 영업을 위해 임시사용 허가를 내준 것 등 케이블카 사업이 많은 혜택을 받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고 의원은 “사회공헌사업 미이행은 지역민뿐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여수시는 하루속히 약속된 사회환원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 강력한 조치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여수해상케이블카의 기만행위를 비난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도 거세다.

앞서 돌산주민들은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여수시에 약속을 파기한 배은망덕한 여

수해상케이블카의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돌산지역 주민대표(돌산연합청년회 등 7개 단체 대표)들은 “2014년 부도 직전이었던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시의 자원과 시민들 그리고 돌산주민들의 희생의 대가로 현재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며 “자발적 기부 약속을 하고도 5년이 지난 지금에 강압에 못 이겨 공익기부를 했다며 담당 공무원까지 고소한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스스로 파멸시킨 기업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희 여수YMCA 사무국장도 “3.3%를 기부하는 목포 케이블카와 달리 자체 장학재단 설립 등 말도 안되는 핑계로 공익을 계속 부린다면 전남도 허가조건과 다른 현 시 지역 주차장 운영 상황 등을 통해 운행 허가를 당장 중지 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수=김칭화 기자 chkim@

## 디오선리조트서 재미·감동의 성탄절 이브 즐겨요

24일 ‘뮤지컬 마리오네트’

남해안 대표 종합휴양관광시설인 여수 디오선리조트가 재미와 감동을 선사할 크리스마스 이브의 밤 이벤트를 개최한다.

여수디오선에 따르면 오는 24일 오후 7시 디오선호텔 1층 그랜드볼룸에서 ‘크리스마스 이브의 밤, 뮤지컬 마리오네트’를 개최한다. <포스터>

지난 2008년 디오선리조트 개관 이래 매년 새로운 컨셉으로 이어온 이번 행사는 올해 12번째로, 디오선 호텔 충주방장이 직접 연출한 특선부패와 함께 다채로운 공연으로 크리스마스 이브를 재미와 감동으로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이벤트는 스페셜 디너 뷔페와 더불어 국내 최고 동물 마술왕인 황갑주의 애니멀 매직쇼로 첫 무대를 장식한다.

이어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최고의 비보이로 각광 받고 있는 비보이팀 ‘익스플레스 크루’가 창작 뮤지컬 ‘마리오네트’를 선보인다.

기존의 비보이 공연에서 볼 수 없는 신선함과 웅장함을 갖춰 재미와 감동을 함께 느낄 수 있다. 마리오네트는 세계 최정



상 비보이팀 ‘익스플레스 크루’가 지난 2006년 초연한 이래 새로운 캐릭터와 미디어 아트 퍼포먼스 등을 더한 순수 창작 뮤지컬이다.

이와 함께 지난 29일 개관한 아트디오선 갤러리 관람과 어린이들을 위한 산타클로스 선물증정, 행운권 추첨, 고객과 함께하는 레이아웃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공연 후 마리오네트 출연자인 비보이 ‘익스플레스 크루’와 포토타임도 마련돼 있다.

크리스마스 특선부패와 뮤지컬 ‘마리오네트’를 비롯한 다채로운 공연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의 입장권 가격은 A석 대인 5만원, 소인 4만원부터다.

/여수=김칭화 기자 chkim@

**방치된 묘지 70%(추정)**

#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 062-412-2800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함평수목장**  
함평군 대동면 소재  
광주화장장에서 46km(약 50분 소요)  
목포화장장에서 39km(약 35분 소요)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순천화장장에서 52km(약 50분 소요)